

우리 영화 이론의 오류

‘영화는 종합예술이다’, ‘영화는 빛의 예술이다’, ‘영화는 제7의 예술이다’, ‘영화는 잔상효과이다’ 등의 영화적 명제 오류 —영화는 규칙적 명멸 효과의 산물—

‘순수영화’, ‘문예영화’, ‘예술영화’, ‘영화 같은 삶’ 등의 일본과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오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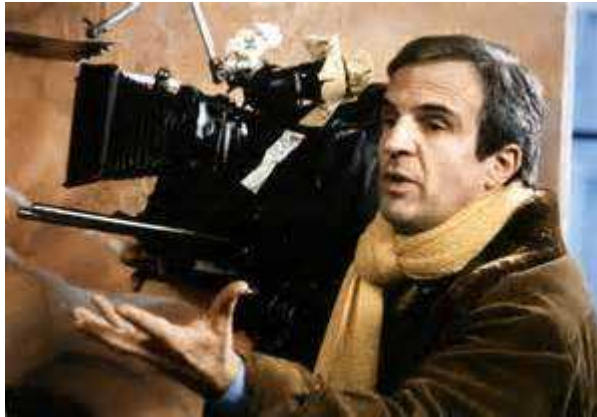
누벨바그 감독들을 새로운 영화만을 추구한 감독으로 소개하는 비평 오류,

1895년을 영화 탄생의 해로 지정하는 사변적 지식 오류

영화사의 분류

뤼미에르 형제, 이들 영화의 형식적 가치를 높이 산 브레송, 그를 영화의 스승으로 삼은 누벨바그 감독들, 세기의 거장 펠리니, 안토니오니 Michelangelo Antonioni, 타르콥스키, 한국의 하길중 감독

프랑스와 트뤼포



프랑스와 트뤼포는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수상 프랑스 감독들의 작품을 심리적 사실주의 영화로 규정하고 그 문학적 요소를 비판하는 ‘프랑스 영화의 한 경향’이라는 제목으로 누벨바그 선언문을 쓴다(에필로그 번역 참조).

누벨바그의 스승 : 『소매치기 *Pickpocket*』(Robert Bresson, 1959)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1951)

시나리오 작가들의 각색에 의존한, 심리적 사실주의 감독들 예를 들어 클로드 오탁-라라 Claude Autant-Lara, 이브 알레그레 Yves Allegret 등의 영화를 문학적 영화로 규정하고 진정한 영화인이 쓴 시나리오에 의한 시네마토그래프의 방법을 누벨바그 영화의 전범으로 삼은 것



누벨바그 영화가 문학적 영화에 맞선 영화다운 영화인의 결집이라면 『원스』는 음악적 영화에 맞서 음악도 사운드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 영화다운 영화라 하겠다. 존 카니, 『원스 *Once*』(2006).

‘시나리오 작가와 주제의 선택,
과감한 결작의 채택,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관객들에 대한 신뢰감’
과거 시적 리얼리즘으로의 오디세이 추구

핸드 헬드 촬영, 자연광 촬영, 노 개런티 캐스팅, 즉석 콘티뉴티를 마치 이들의 새로운 기법처럼 소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적 리얼리즘 혹은 인상주의 영화의 정신을 복원하려는 이들은 경비 절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 촬영, 고성능 카메라 사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다.

누벨바그 감독들 역시 심리적 사실주의 감독들에게 한판승을 거둔 이후 개별 작업에 매진하여 저마다 특성을 지닌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심지어 카뮈의 『이방인』의 세상의 다정한 무관심을 영화화하려 한 프랑스와 트뤼포, 마오이즘, 맑스·레닌이즘과 사르트르의 좌파 현상학을 영화화하려 한 장뤽 고다르, 두 작가는 영화 제작 방식에서 유사한 점을 보이이지만 주제와 관련하여 심한 대조를 이룬다. 이외에도 초지일관 정신분석을 다루고 있는 클로드 샤브롤, 섬세하고 포용적이며 강인한 여성성을 영화화한 아네스 바르다, 모럴리스트로서 철학자다운 삶을 영화화 한 최후의 누벨바그 감독 에릭 로메르 등 누벨바그 감독들의 작품 세계들은 구심점을 형성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개성적인 작품을 통해 프랑스 영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화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